

한-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 FTA 추진에 따른 기업의 FTA 활용



김한성 교수
이주대학교



200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이후에 EFTA, ASEAN, EU, 미국, 인도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및 거점국가들과의 FTA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영연방에 속하는 호주, 캐나다와의 FTA가 완료되었다. 호주와의 양자간 FTA는 지난 2014년 4월에 공식적으로 협정문에 서명하였고 2005년에 개시되어 거의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협상이 진행된 한·캐나다 FTA도 2014년 9월에 정식 서명하였다. 또 다른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와의 양자간 협상도 현재까지 총 9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조만간 양국간 타결 선언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01 진행현황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세 국가가 모두 영연방이라는 점 외에 경제적·문화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02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특징

첫 번째 공통점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원거리 교역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 수출에서 對호주 수출은 약 96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13위 수출국으로 기록되었고 캐나다와 뉴질랜드에 대한 수출은 각각 52억 달러와 15억 달러로 교역대상국 순위에서 23위와 44위를 차지하였다. 수출 규모면에 있어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對호주 수출은 유사한 원거리 교역국인 멕시코나 브라질 수출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對캐나다, 뉴질랜드 수출은 대부분의 동남아시아나 동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보다도 낮다.

수출규모면에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주목받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특징이 된다. 2013년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호주의 1인당 GDP는 6만 7천 달러로 세계 7위 수준이며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도 5만 2천 달러와 4만 1천 달러로 각각 14위와 25위에 랭크되었다. 또한 2013년도 우리나라 수출액을 수출상대국 인구조로 나눈 국가별 1인당 수입액에서 호주는 1인당 약 405달러의 한국 제품을 수입하였고 뉴질랜드의 1인당 한국 제품 수입액은 약 328달러에 달했다. 1인당 한국 제품 수입액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인 미국인 경우가 약 195달러 정도이고 일본도 약 273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호주와 뉴질랜드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50대 주요 수출국 중 중개무역 국가인 싱가포르나 홍콩, 그리고 원자재 수입이 많은 대만을 제외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가장 높은 1인당 한국 제품 수입액을 기록한 국가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이들 영연방 3국은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지니고 투명한 시장접근성이 보장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1차산업 혹은 가공 1차산업이 주요 수출 산업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뚜렷하게 상호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모두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인 동시에 개방형 국가로 투명하고 안정된 시장운영이 이루어지는 국가이다. 또한 영어서용권 국가라는 점은 우리나라 기업, 특히 이들 국가에 수출을 시작하

라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시장영향에 대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들어 FTA에 대한 관심을 제곱해서 이상으로 몰려 기업의 활동으로 진화되고 있는 해외 진출에 대한 수출전략은 우리나라 FTA 확대의 주요 목적이 된다. 특히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수출경쟁이 낮은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FTA의 중요한 기능이다. 2012~2013년 기간 국내 중소기업의 유라시아 FTA 체결 대상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살펴 보면, 현재 수출은 전체의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ASEAN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은 같은 기간 영업이익의 9%의 비중을 보였으며, 또한 유라시아 지역 수출 비중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비중이 있는 기업에 비해서 20% 이상 높았으며, ASEAN에 대한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비중은 29%로 증가하였고 ASEAN에 대한 수출을 안하던 기업은 현재 20% 이상 증가하였다. 유라시아 지역은 현재도 미국과 유럽보다 중소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과 유라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수급차의 FTA에 대한 이해관계가 유망한 곳으로 수출시장의 관세 철폐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권 경제의 경제의 영향을 지니는 선진국으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FTA는 국내 수출 기업의 FTA 활용에 있어에도 국이나 유라시아의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급차 격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 한·미·EU·NAFTA와 같은 북미지역과의 FTA는 아직까지는 아세안과는 견줄 수 없고, 일본은 한국 제품과 대한 수출, 그리고 특산물 관련성을 지닌 FTA 관련 정책에서 유라시아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에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것으로 예상되는 원산지의 검증은 중소 기업에 유망한 해외의 수출 활용하는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관련해서 정부의 원산지검증과 유망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행정청 국가지원 정책, 의무 등 중소기업에서 안전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는 저수 관세 산업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검증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비준 및 불준에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FTA 최근 동향

01 관세청 주요 이슈

「국제원산지코퍼런스」 개최

지난 9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FTA 국제원산지코퍼런스(FTA is now a must, not a choice)라는 주제로 '2014 국제원산지코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코퍼런스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아세안, 중남미 등 교역상대국과 기획재정부,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관세사회, 중소기업중앙회, 주한 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대사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O), 업계 등 여러 분야의 원산지전문가들이 토론에 참가했다. 특히 코스타리카·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과테말라·키메론 관세청장, 브라질 칠레 온두라스 관세청 차장 등 고위 관세당국 공무원들의 참석이 코퍼런스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